

보령시의회,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운영

- 조례안 및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3건 안건 처리
- 김충호 부의장 건의, “쌀 가격 폭락 방지 및 농가 소득 보장 촉구”
- 최은순 의원 5분 발언,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주도적 대응 필요”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지난 19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5일간 회기를 운영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9건 등 13건의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충호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쌀 가격 폭락 방지 및 농가 소득 보장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모 의장



▲김충호 부의장

김충호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2022년 8월 2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183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333원보다 24.4% 가 폭락했다”며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의 시장 격리 제도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 매입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쌀 가격 폭락 방지 및 농가 소득 보장 촉구 건의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21일과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은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최은순 의원은 ‘지역 소멸 위기의 보령,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주도적 대응 필요’를 주제로 발언하며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최은순 의원

최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추진’,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생활 인구 유입 시책 추진’을 제안하고, “보령시가 자손 대대로 발전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박상모 의장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달 가까이 흘러 어느덧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며,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알찬 준비를 통해 보령의 밝은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47회 임시회는 10월 17일부터 26일 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더 빠른 소식을 받으세요~ 보령시 SNS 매체현황

(2022. 7. 31. 기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anseboryeongsi	팔로워 45,349명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boryeongsi	방문 10,837,195명
	네이버포스트	https://post.naver.com/boryeongsi	팔로워 3,746명
	유튜브	https://www.youtube.com/boryeongsi	구독 5,492명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oryeongsi/	팔로워 11,436명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boryeong	구독 7,577명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154464	조회 9,008회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IAXPxb	친구 87,745명